

힐링과 치유...추억의 충장축제 돌아온다



오는 11월 3일부터 5일간
대면·비대면 시민참여형 축제
7개 분야 15종 프로그램 추진
코로나 확산 방지 대비책 마련

광주 동구는 코로나 일상시대에 맞춰 주민과 방문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명실상부한 시민참여형 축제의 명성을 잇고자 대면·비대면 병행 '제18회 추억의 충장축제'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모든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추진될 계획이며 축제 방역 매뉴얼에 따라 ▲단계별 관람객 인원 제한 ▲방역 운영 부스 설치 ▲사전 예약제 시행 ▲관람객과 공연팀 입·퇴장 분리 운영 ▲출입·발열 체크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했다.

IN 광주여행 ▲우리 마을 골목에서 즐기는 충장축제 등으로 축제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빠 어릴 적 사진 못 그리기 공모전 등 지역민·일반시민과 더불어 문화 소외계층이 함께 참여하는 추억소환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역 문화예술 공연 참가팀을 모집한다. 최근 3년간 각종 축제행사에 참여한 경력이 3회 이상인 단체 또는 개인이면 신청 가능하며, 참가 신청은 충장축제 누리집(http://www.donggu.kr/cjf) 및 동구청 누리집을 참고해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문화제야행 6년 연속 공모 선정

광주 동구는 최근 광주문화제야행 '동구 달빛결음'이 문화재청이 주관한 '2022 문화재 활용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대인시장 주차난 해소 공영주차장 준공

58억 투입 134면 규모
이달 말까지 무료 개방

광주 동구는 전통시장 주차난 해소를 위해 대인시장에 134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차 면수는 기존 60여 면에서 134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으며 경차 12면, 일반 117면, 장애인 5면, 화물차 전용 노면 주차장 등 차량별 주차 면을 두루 갖추고 있다.



광주 동구는 최근 전통시장 주차난 해소를 위해 대인시장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 /동구 제공

이날 준공식은 경과보고, 감사패 전달, 테이프커팅에 이어 내부시설을 둘러보는 순서로 진행됐다.

임택 동구청장은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시장을 찾는 많은 이용객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해 보다 손쉽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매출 향상 등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준공된 대인시장 공영주차장은 2019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58억 5,000만 원을 확보하고 3층 규모 4만 주차터와 노면 주차장을 조성했다.

먹거리 공공 조달체계 구축 급식지원센터 운영

광주 동구가 지역 내, 지역 간 상생을 통한 먹거리 공공 조달체계를 구축하고 먹거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동구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연계를 통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에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선순환 먹거리 조달체계를 구축하고 센터가 단체급식의 공공성 확보, 구민의 먹거리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구는 지난해 9월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소태동에 저온 저장시설을 겸비한 사무실과 운영인력을 채용해 공공급식지원센터 출범을 준비해왔다.

동구는 센터를 플랫폼으로 모든 공공급식 지원 대상의 친환경 식재료 사용과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마을밥상 운영, 취약계층의 먹거리 안전체계 구축, 도·농 간 체험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동구민의 먹거리 기본권과 건강권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민관 협력을 통한 센터 운영을 위해 심의위원회·운영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배송과 공급 협력업체 공개모집 및 공급 능가 선정을 거쳐 이달 초부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시작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센터 출범을 계기로 안전한 식재료 공급과 교육은 물론 먹거리의 소중함과 농업의 생태적 가치를 알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어르신들께 전화로 책 읽어드려요”

시니어클럽·60+책의해 협약
비대면 낭독 프로그램 눈길

광주 동구는 최근 광주동구시니어클럽(관장 전성남), 60+책의해 추진단(단장 안찬수), (사)동구자원봉사센터(센터장 오미덕)와 비대면 책 낭독 지원 프로그램 '전화로 책 읽어드립니다'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런 사업은 동구가 '책 읽는 동구' 등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인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책 낭독자가 소외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책을 읽어줌으로써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소외감, 고독감을 해소하고 어르신들에게 독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업 대상자 모집 ▲프로그램 운영 ▲낭독가 모집 ▲낭독활동가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60+책의해' 추진단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번 사업은 신체적, 환경적으로

이므로 인해 책을 읽기 어려운 환경에 놓인 60세 이상 문화 소외계층에게 전화로 책을 읽어주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동구 거주 60세 이상 참여 어르신 200명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진행되며 책 낭독가 한 명당 10명의 어르신들을 매칭해 회당(주 1회) 20여 분 동안 전화로 책을 낭독한다.

임택 동구청장은 "다양한 독서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동구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9월분 재산세 137억 부과

광주 동구는 올해 9월분 재산세 총 3만 2,392건, 137억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올해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1년에 2회에 걸쳐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납부할 재산세는 주택 27분과 토지 분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동구 ARS(080-608-3651)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이밖에 모바일 전자 송달을 신청하면 고지서 없이도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3개월 이상, 평균 10%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건축물) 감면을 시행한다.

희망자는 오는 12월 말까지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1과 재산세계(062-608-2982, 2984)로 문의하면 된다. /오선우 기자

행복 위에 지은 집! GOLD CLASS

골드클래스에서 사업 파트너를 찾습니다

“개발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계신 분”
“개발 사업 부지를 증계하고자 하시는 분”
“소유하고 계신 부지의 개발 파트너를 찾는 분”

성공을 위해 함께하는 골드클래스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골드클래스(주)
보광종합건설(주)

■ 문의 : 062) 233-3999 (내선 500, 503)
 010-3637-3735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01(화정동)